

최미선·오예진·남수현·이은경, 태극마크 명중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 남녀 국가대표 16명 선발...두 차례 순위 평가전 치러 파리행 티켓 확정

최미선(광주은행 탤런트양궁단)과 오예진(광주여대), 남수현·이은경(이상 순천시청)이 2024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최미선은 1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 여자부에서 종합배점 51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오예진이 4위(44점), 남수현이 6위(38점), 이은경이 8위(33점)를 기록하며 태극마크의 주인공이 됐다.

2016 리우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은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 도전의 기회를 잡았고, 2022 3차선발전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아쉽게 항저우아시안게임 티켓을 놓친 오예진은 파리올림픽을 향한 희망을 키웠다.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남수현은 생애 첫 태극마크를,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 주인공 이은경은 6년 만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친 김이안(광주은행 탤런트양궁단·17점)은 15위에 그



1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단 최미선, 오예진, 남수현, 이은경(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치며 내년 선발전을 기약하게 됐다. 남녀부 1위는 김제덕(58점)과 임시현(59점)이 차지했다.

최미선은 "광주은행 만연리로 국가대표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해 기쁘다. 매 순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회전이 거듭할 수록 내재된 잠재력이 발휘된 것 같다"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좋은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진은 "양궁 선수로서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전진했다. 무엇보다 동계훈련을 통해 체력을 보완하고,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 부족한 1%를 메우려 노력했다"면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올림픽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 향

상 초심으로 남은 두 차례 순위평가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2024 국가대표로 선발된 남녀 공사 16명은 오는 23-29일 청주, 4월5-11일 예천에서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진행, 1-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남녀 상위 1-3위가 파리행 주인공이 된다. /박희중기자

네일 "내일은 진일보"

시범경기 두산전 3.1이닝 8피안타 6실점 '패전'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투수 네일이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네일은 1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4 KBO리그 시범경기 5차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3.1이닝 동안 8피안타 1사사구 4삼진 6실점했다.

KBO리그 첫 선발실전에 나선 네일은 4회에 갑자기 무너지며 패전의 멍에를 떠안았다.

다만, 스프링캠프 후투에 이어 지난 9일 NC와의 시범경기 1차전에서 중간계투로 나와 2이닝 무실점 호투한 만큼 KIA는 다음 등판을 기대하고 있다.

네일은 총 18명의 타자를 맞아 투심과 슬라이더, 커터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다. 총 70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구속 148km를 찍었다.

1회에 두 타자에게 안타를 내주며 1실점한 네일은 2회 들어 2개의 삼진을

잡으며 슬슬 제 컨디션을 찾아가는 듯했다. 3회도 단 10개의 공으로 이닝을 끝마쳤다.

하지만 4회 들어 안타 5개를 난타당하는 등 크게 흔들렸다.

네일은 선두 타자를 시작으로 연속 3안타를 내주며 2실점 한 데 이어 2안타를 더 허용, 1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선발 네일의 난조에 경기는 KIA가 2대7로 패했다.

KIA는 그나마 5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이의리가 눈부신 호투를 선보이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이의리는 4이닝 동안 17타자를 맞아 7개의 삼진을 빼앗으며, 두산 타선을 8회까지 단 30타로 틀어막았다.

네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대유는 0.2이닝 동안 2피안타 1삼진 1실점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네일이 14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했다. 이를 전 한화와의 시범경기때 6안타에 그친 타선은 이날 더 침묵해 3안타 타점에 허덕였다.

KIA는 6회에 박찬호의 볼넷과 박민재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고, 7회에 최

형우의 볼넷, 서건창의 2루타에 이어 이창진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얻는 데 그쳤다.

시범경기 2승 3패를 기록한 KIA는 15일 같은 장소에서 두산과 시범경기 5차전을 치른다. /주홍철기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 10주년...23-24일, 2024 오프닝 시리즈 이벤트 다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3-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4시즌 오프닝 시리즈에 'ALL SET FOR 2024 TIGERS FESTA (2024 타이거즈 페스타 준비 완료)'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ALL SET FOR 2024 TIGERS FESTA'는 정상을 목표로 질주하는 KIA 호랑이들의 포효를 중심으로 개장 10주년을 맞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1년 내내 팬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단의 의지를 담았다.

23일 경기 전에는 개장 10주년을 기념한 '챔피언 10살 생일파티'가 열린다. 챔피언 '1호 기록'을 보유한 양현종(승리, 탈삼진), 나성범(홈런), 김태균(타점)이 함께 케이크를 커팅하며 챔피언의 10살 생일을 축하한다.

개막전 시구는 챔피언 개장 10주년을 맞아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한다.

애국가는 한국국제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중인 성악 천재 박애나(10) 어린이가 부른다. 경기 전에는 태권도

'2024 타이거즈 페스타 준비 완료'



시범전 K-TIGERS의 태권도 시범 공연이 진행된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23일 경기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첫 경기가 열린 2014년 4월1일에 태어난 정운지(10·서립초), 조이찬(10·태봉초) 어린이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한다.

이날 애국가는 광주 출신 팝페라 '사과나무'의 테너 김주형 씨와 베이스바리톤 박성호 씨가 부른다.

9인조 실력과 걸그룹 케플러(Kep1er)가 경기 전과 경기 중 클리닝타임에 축하공연을 펼친다.

경기 전 팬 사인회 행사도 진행된다. 첫째 날 양현종, 김도영을 시작으로 둘째 날 나성범, 윤영철의 사인회가 진행된다. 사인회는 선착순 100명이며, 참여 방법은 구단 채널을 통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기념품도 풍성하다. KIA는 오프닝

시리즈 동안 입장 관중에게 응원 타올 3만개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인크퍼피는 리우저블 컵, 커피믹스, 드림백 등이 담긴 기프트 박스를 입장객 전원에게 나눠 준다.

한편, 개막전 티켓 예매는 경기 7일 전인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www.ticketlink.co.kr)를 통해 가능하다. /주홍철기자



14일 열린 2024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수창초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수창초, 협회장기 초등야구 우승

수창초 김지후 대회 MVP

수창초가 2024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겸한 회장배(제19회 천안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수창초는 지난 12-14일 광산구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3전승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첫 경기 대성초를 상대로 9대2 콜드 게임승을 거둔 수창초는 둘째 날 부전승으로 올라온 대성초를 1대0으로 꺾고 연승했다.

수창초는 마지막 날 화정초를 맞아 4

대3, 1점차 승리를 거두며 빛고을 초등야구 최강을 확인했다.

우승을 차지한 수창초는 다음달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제20회 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준우승 팀 화정초와 광주 대표로 출전한다.

대회 최우수선수에는 수창초 김지후가 선정됐고, 수창초 박건후와 화정초 구대원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한편, 제11회 대신육가공회장배 중계 게임승을 거둔 수창초는 둘째 날 부전승으로 올라온 대성초를 1대0으로 꺾고 연승했다. 수창초는 마지막 날 화정초를 맞아 4 /박희중기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14일 열린 전영오픈 여자 단식 32강에서 대만의 원지쉬를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안세영, 전영오픈 2연패 '시동'

원지쉬 완파 16강 안착

안세영(22·삼성생명)이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2연패를 향해 가볍게 첫발을 뒀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4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대만의 원지쉬(세계 27위)를 2-0(21-17 21-16)으로 완파했다.

지난주 부상을 딛고 프랑스오픈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이 대회 타이틀을 지켜내고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하

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하용(전북은행) 조,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 조도 나란히 16강에 안착했다.

여자 단식 김가은(삼성생명)과 지난해 동메달로 만족해야 했던 혼합복식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도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KIA·LAP 컬래버레이션 상품 출시

오는 31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 팝업 스토어 운영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LAP(LOS ANGELES PROJECT)과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

KIA는 인기 영계주얼 브랜드인 LAP과의 협업을 통해 티셔츠, 원피스, 모자, 가방 등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KIA 관계자는 "KBO 리그에서 여성 팬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성 전문 영계주얼 브랜드 LAP과의 협업을 준비하게 됐다. 여성 야구팬이 야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코디해 입을 수 있는 의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컬래버 상품은 LAP 공식 자



사물 데어미올과 SSG닷컴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편, KIA 타이거즈와 LAP의 팝업 스토어는 오는 21-31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되며, 선수들의 친필 사인물 증정과 특가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홍철기자